



## 9월 고용동향 발표

최 원 선임연구원

- 2011년 9월 취업자 수는 2,431만 8,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4,000명 증가하였으며, 고용률은 전년동월과 동일한 수준인 59.1%, 실업률은 0.4%p 감소한 3.0%를 기록함.
  - 추석연휴 및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농림어업, 건설업 등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으나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,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한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.
  - 고용률은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로 전년동월과 동일한 수준인 59.1%를 기록함.
  - 실업자 수는 30~40대 실업자 수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전년동월대비 10만 명 감소한 75만 8,000명을 기록함.
  
- 청년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0.5%p 상승한 40.1%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, 청년 실업률도 0.9%p 하락한 6.3%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이 이어짐.
  - 청년층 인구가 전년동월대비 12만 8,000명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 수는 2,000명 증가함.
  - 특히, 주 취업 연령층인 25~29세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3.0%p나 상승한 70.9%를 기록하였으며, 실업률도 1.5%p 하락한 5.3%를 나타냄.
  
- 정부는 9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전반적인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, 추석연휴 효과가 사라지는 10월에는 취업자 수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.
  - 정부는 9월 추석연휴 등 일시적 요인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서비스업 등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흐름이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냄에 따라 민간 고용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함.
  - 그러나 정부는 글로벌 경기둔화,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향후 실물경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,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임.

(2011년 9월 고용동향, 기재부, 10/12)